

전남

여수 돌산2대교 야간경관 '빛' 못볼라

세계박람회 대비 LED 조명 예산 3억 불과... 국비지원 절실

여수시가 내년 개통 예정인 '돌산 제2대교'의 야간경관 조명시설에 국비지원이 절실하다며 당국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월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하 익산청)에서 사업비 955억원을 들여 착공한 돌산 제2대교가 내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마지막 상판연결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돌산 제2대교의 야간경관 조명사업비는 총 3억원에 불과해 돌산 제1대교의 조명시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돌산 제1대교의 경우 제2대교보다 규모는 작지만 여수

시 특별교부세 7억원이 조명사업비로 투자됐다.

지난 2000년 조성된 돌산 제1대교와 비교하면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돌산 제2대교는 일반 가도등 수준이라는 평가다.

시는 '돌산 제2대교'를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비한 여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교량에 첨단기능의 LED조명을 활용해 야간경관 조명을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확보된 예산이 3억원에 불과, 국비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돌산2대교 야간경관과 기존 수변공간에 설치된 조명시설간에 부

조화를 가져와 시각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발주청인 익산청과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박람회조직위원회 등에 구형 에너지 고소비형 투광등 조명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색상변환이 가능한 최신 LED 조명시설로 설계변경(30억 소요)토록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익산청에서는 국가계약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돌산 제2대교 야간조명시설은 1대

교와 함께 박람회사이트 돌산지구 환승주차장의 관문으로 지역민들의 관광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박람회 이후에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돌산 제2대교가 개통되면 교통량 분산은 물론 오동도에서 해양공원, 소호 요트장을 잇는 선상 야경투어 코스로 개발돼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협조 아래 반드시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LED조명 시설로 보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돌산 제2대교는 여수시 중화동과 돌산을 우두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82km, 폭 20m(4차로) 규모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화순군 "어려운 이웃에 땀감 나누어 드려요"

화순군 직원들이 최근 관내 독거노인 등에게 나누어 줄 '사랑의 땀감'을 차량에 싣고 있다. 군은 올해 숲가꾸기 사업에서 수집한 산물을 땀감 1만6000다발(1트럭 160대분)을 만들어 관내 소년소녀가장·생계지원대상자 등 160세대에 전달했다.

화순군 제공

평등 광양-하동협 자매결연 지역간 화합·공동발전 모색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 협의회와 하동군 협의회는 최근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에서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가졌다.

양시·군협의회는 앞으로 통일실현을 위한 정책수립과 자문역할에 충실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양 지역간 화합과 공동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황득현 광양시협의회장은 "광양시와 하동군은 섬진강을 사이에 둔 이웃형제로서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통해 통일을 위한 민간차원의 외교활동과 상호간 교류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내년 中 시안 원예박람회장

순천시, 한국전통정원 조성 본격 돌입

내년 4월 열리는 중국 시안(西安) 세계원예박람회장에 들어설 한국전통정원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한국전통정원의 목재와 기와 등 사모정 주요 자재를 이번주 광양항을 통해 선적·운반중이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시안박람회장내 한국전통정원 조성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00㎡ 규모로 한국 전통 정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수 마무리될 예정이다.

순천시와 중국 시안시는 지난해 11월 MOU를 체결,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한국 전통정원과 중국 전통정원을 각각 상대 박람회장에 조성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 유럽·아시아 등 각국의 세계정원 10개와 국내의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테마정원 30여개소를 유치하는 등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우이도 사구(砂丘)보호 자문協 구성

다도해서부사무소 대책마련

오는 2015년까지 출입이 금지된 동양 최대의 풍성사구(風成砂丘)인 신안군 우이도 모래언덕 보호 대책마련을 위한 자문 협의회가 구성된다.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다음달 전문가와 관계기관, 주민 대표 등으로 자문협의회를 구성해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의한 사구형성 방해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최근 열린 사구의 합리적

보호 대책과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사구식물이 많이 성장해 모래이동에 지장이 많으며 제거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훼손지역의 복원이 더디고 지형변화를 대변할만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가 데이터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등 개선 방향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한편 우이도 사구는 해발 고도 100m, 폭(밀폭) 20m, 경사 33도의 동양 최대 모래언덕이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고흥 나로우주센터 가는 길 '안전하게'

고흥~봉래간 선형 개선사업

고흥 나로 우주센터 등을 가는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도로선형(線形)이 대폭 개선된다.

고흥군은 선형개량을 지속적으로 견디며 왔던 고흥~봉래간 국도 15호선 위험구간 선형 개선사업이 최근 국토해양부 등으로부터 사업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내년 실시될 것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3년 완공할 예정이다.

대상구간은 포두면 옥강 삼거리에

서 남상 삼거리 3.52km와 봉래면 예내리에서 우주센터 입구까지 3.26km 등 총 연장 6.78km이다.

특히 나로우주센터 등은 연륙·연도교로 육지와 연결이 돼 있지만 섬을 지나는 내부 연결도로는 바닷가와 산악지대를 통과, 굴곡이 심한 전형적인 위험도로다.

고흥군 관계자는 "나로 우주센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경중기자 gjju@

Advertisement for movieholics, MEGABOX, and CINUS theaters, listing movies like 'The Man from Nowhere' and 'The Healer'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공장매매' (Factory Sale) featuring '위치' (Wich) and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Hamgyeong School Agricultural Land) with details on land area and price.

Advertisement for '호남랜드공인중개사' (Honam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lease.

Advertisement for '믿음 공인중개사' (Trust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ing properties in Chmandan and Chmandan-geon areas.

Advertisement for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New Real Estate Agent (Specializing in Rentals)) listing various rental and sale properties.

Advertisement for '금당 공인중개사' (Geondang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lease.